

# 開闔樞에 관한 研究

姜政秀\*

## I. 緒論

## II. 本論

六經의 생리적 원리는 臟腑를 중심으로 한 五運의 원리인 五行의 相生相克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經絡을 중심으로 한 六氣의 원리인 三陰三陽의 開闔樞와 標本中氣를 바탕으로 하는 六經調節機轉이며, 이것으로 經絡과 傷寒論의 氣化學說을 설명하게 된다<sup>1)</sup>.

開闔樞는 《素問·陰陽離合論》, 《靈樞·根結》에 처음 기술되었는데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開闔樞를 주로 三陰三陽의 생리특성과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靈樞·根結》에서는 開闔樞의 병리적인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開闔樞 이론은 後代에 張景岳, 高世栻, 張志聰, 柯韻伯, 陳修園 등의 醫家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에 있어서도 그 意義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開闔樞를 연구하는 것은 六經을 연구하는 것이며, 생리기능·病候의 歸納·病機의 해석·轉歸의 분석·예후의 판단 및 치료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그러나 開闔樞의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 자료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筆者는 六經의 調節機轉중 開闔樞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 陰陽의 離合

《素問·陰陽離合論》<sup>2)</sup>에는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라고 하여 사물이 陰陽 두 속성으로 분류되고, 陰陽 속에서 다시 陰陽을 나눌 수 있으며 이것들은 또 끝없이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張<sup>3)</sup>도 또한 “然易道無窮, 而萬生于一, 一分爲二, 二分爲四, 四分爲八, 八分爲十六, 自十六而三十二, 三十二而六十四, 以至三百八十四, 萬有一千五百二十策, 而交感之妙, 化生之機, 萬物之數, 皆從此出矣.”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인체의 생리·병리현상과 변증논치 등을 설명하는데 널리 응용되고 있다.

陰陽을 經脈의 관점에서 볼 때, 인체의 經脈은 하나로 말하면 통일된 整體이고, 나누어 말하면 陰經·陽經으로 나누어진 다. 陽經은 太陽·陽明·少陽의 三經으로 나누어지고, 陰經은 太陰·厥陰·少陰의 三經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三陰三陽經脈은 각기 表裏 相合關係를 갖는다. 즉 太陽은 少陰과 相合하고 陽明은 太陰과 相合하며 少陽은 厥陰과 相合하는데, 이들은 생리활동중에 때로는 떨어지고(離) 때로는 결합하는(合) 등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高<sup>4)</sup>는 “離則有三, 合則爲一, 從三

2) 王琦의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38.

3) 張介賓편 :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392.

4) 高士宗 : 黃帝內經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54.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1) 東國大學校 生理學敎室 : 經絡生理學, p.18.

而十百千萬皆離也. 三陽歸于一陰, 三陰歸于一陽, 皆合也”라 하여 三經이 分立된 것이 아니고 相互協調하는 하나의 정체로서, 離는 陰陽이 각각 나뉘어 三이 되며, 合하여 ‘一陰’, ‘一陽’이 되어서 서로간에 不得相失한다고 설명하였다.

‘離’는 각 經脈에는 자신의 순행부위와 臟腑絡屬關係 및 생리기능이 있음을 가리키고, ‘合’은 經氣가 서로 연결되어 기능상에 있어서 상호 쓰임이 되고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 때문에 《素問·陰陽離合論》<sup>5)</sup>에 “陰陽雱重雱重,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라고 한 것이다.

또한 《素問·陰陽離合論》<sup>6)</sup>에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陰陽의 離合이 三陰三陽의 開闔樞로써 설명이 가능하며, 동시에 이들의 相互依存과 相互制約에 의하여 臟腑와 經絡의 생리활동이 이루어짐을 표현한 것이다.

## 2. 開闔樞의 概念

《素問·陰陽離合論》에서 처음 언급된 開闔樞는 아래와 같이 註家에 따라 그 概念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門을 이루는 세부분을 말한다. 즉, 關은 門栓을 지칭하고, 闔은 門板을 지칭하며, 樞는 門軸을 지칭하는데,<sup>7)</sup> “關”字는 後來에 “開”로 誤寫되어 있으나 《黃帝內經太素》<sup>8)</sup>에는 “關”으로 되어 있다. 楊<sup>9)</sup>은 “門者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二者門闔, 主關閉也. 謂是門扉主關閉也……三者門樞, 主轉動者也”라 하였고, 門중에서도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이라 하여 三陽과 三陰을 구분하였으며, 陳<sup>10)</sup>은 “開闔者, 如戶之扉, 樞者, 扉之轉樞也, 舍樞不能開闔, 舍開闔不能轉樞. 是以三經者, 不

得相失也, 開主外出, 闔主內入, 樞主內外之間”이라 하여 開闔樞를 門의 세부분을 빌어 그 주된 작용과 각각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둘째는 氣의 多少에 따라 動靜과 作用이 다르다. 王<sup>11)</sup>은 “開闔樞者, 言三陽之氣多少不等, 動用殊也. 夫開者, 所以司動靜之基, 闔者, 所以執禁固之權, 樞者, 所以主動轉之微, 由斯殊氣之用, 故此三變之也”라고 하여 氣의 多少不等에 따라 動靜과 作用에 차이가 생기며 이로 인하여 세가지의 변화과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셋째는 氣가 소통하는 통로다. 宋<sup>12)</sup>은 風寒暑濕燥火의 눈에 보이지 않는 大氣도 눈에 보이는 물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어서 나가고,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이 다 막히면 외부의 것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부의 것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니 開闔樞는 이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開는 들어오는 문이 열림을 말하고, 闔은 문이 닫혀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樞는 문의 開闔을 조종하는 돌쩌귀라고 하여 開闔樞를 六氣가 소통하는 통로라고 보았고, 朴<sup>13)</sup>은 開는 門을 여는 것이며 나간다는 말이고, 闔은 들어온다는

6) 上揭書, pp.38-39.

7) 安徽中醫學院·上海中醫學院編: 鍼灸學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275.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44.

9) 上揭書, pp.44-45.

10) 陳鼎三: 醫學探源, 上海, 中醫學院出版社, 1987, p.21.

11) 圖書集成 醫部全錄 第1冊, 서울, 成輔社, 1976, p.92.

12) 宋点植: 醫學輯要, 大田, 文耕出版社, 1991, p.94.

13)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 定期學術發表會 論文集, 1995, p.6.

5) 王琦외;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39.

뜻이며, 樞는 門의 지도리니 바로 나가고 들어오는 중간에 있어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開는 내보내는 것을, 闔은 들어오는 것을, 樞는 門이 함부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열리고 닫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는 表, 裏, 表裏之間의 위치로 설명하였다. 吳<sup>14)</sup>는 “太陽在表, 敷暢陽氣, 謂之開. 陽明在裏, 受納陽氣, 謂之闔. 少陽在于表裏之間, 轉輸陽氣, 猶樞軸焉, 謂之樞”라고 하여 위치와 氣機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馬<sup>15)</sup>는 “太陽者, 三陽也, 爲陽之表, 其義曰開. 陽明者, 二陽也, 爲陽之中, 其義爲闔. 少陽者, 一陽也, 爲陽之裏, 其義曰樞”라고 하여 위치와 陰陽의 次序로 설명하였으며, 張<sup>16)</sup>은 “太陽爲開, 爲三陽之表也. 陽明爲闔, 爲三陽之裏也, 少陽爲樞, 謂陽氣在表裏之間, 可出可入, 如樞機也”라 하여 表裏로써 설명하였다.

다섯째는 陰陽의 運行順序 즉 生·盛·衰에 따라 나누었다. 包<sup>17)</sup>는 “所謂樞, 卽陽或陰之生. 開, 卽陽或陰之盛. 闔, 卽陽或陰衰滅向對方轉化”라고 하여 陰陽의 生·盛·衰의 三段階로 인식하였다.

### 3. 開闔樞의 作用

開闔樞의 作用은 氣化活動으로 이루어진다. 開闔樞의 氣化라는 것은 三陰三陽의 經氣가 人體의 表, 中, 裏에 배합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開는 氣의 運行을, 闔은 氣의 貯藏을, 樞는 氣의 調節作用을 의미하며, 이는 人體의 모든 外向性, 內向性의 氣化活動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經氣와 臟器는 상통하므로 六經의 開闔樞의 氣化는 실제로 臟腑氣化로 발현된다<sup>18)</sup>.

開闔樞는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바탕

으로 六經 각자의 특징적인 기능과 相互連系를 개괄하고 있다.

開는 主表, 向外하며 疏散·升發을 의미한다. 太陽은 一身의 表가 되며, 六經의 울타리(藩籬)이므로 衛氣를 주하며 開闔을 시하여 外邪를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太陰은 三陰의 表에 居하여 陰經의 가리개(屏障)가 된다. 또한 脾의 散精과 肺의 宣降이 開에 의존하며, 精微와 精氣를 分別하여 輸布하는 기능이 있다. 闔은 主裏, 向內하며 受納, 收斂, 內藏을 의미한다. 陽明의 胃는 ‘倉廩之官’, ‘水穀之海’로서, 受納을 司하고, 또한 陽明이 中央에 居하므로 萬物의 돌아갈 바가 되므로 陽明은 闔이 된다. 樞는 中間에 居하며 出入의 機를 주하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少陽은 太陽, 陽明 사이에 위치하여 半表半裏를 주하고 또한 樞機出入의 樞紐作用을 하므로 少陽은 樞가 된다.

그러나 開闔樞 三者는 각자 分立된 것이 아니며 相互協助하는 하나의 整體이다. 그래서 張隱庵은 “開闔者, 如戶之扉. 樞者, 扉之轉樞也, 舍樞不能開闔, 舍開闔不能轉樞. 是以三經者不得相失也.”라 하여 三者가 協助 統一하고 六經 상호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闡明하였다<sup>19)</sup>.

#### 1) 開의 生理作用

郝<sup>20)</sup>은 太陽의 氣化는 膀胱과 小腸 兩經·兩臟機能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15) 程士德주편 :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3.

16) 張介賓주편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286.

17) 包順義주편 : 素問評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6.

18) 東國大學校 生理學教室 : 經絡生理學, p.22.

19) 梁運通주편 :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136.

20) 郝印卿 : 論傷寒六經是臟腑, 經絡, 氣化的有機結合, 中醫雜誌, 1982, p.168.

14) 吳崑 :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pp.33-34.

즉, 膀胱은 津液之腑가 되며, 체내 津液氣化의 중요한 장소로서 外로는 豪毛에 應한다. 小腸은 水穀을 受盛하고 清濁을 分別하여 膀胱으로 滲入시키니 膀胱과 小腸은 水液의 本이 된다. 水氣는 寒하므로 太陽이 寒水의 經이라 稱하는 이유가 된다. 膀胱經脈은 腎에 絡하고, 小腸經脈은 心에 絡하여 各各 서로 表裏를 이룬다. 腎은 命門火를 藏하고, 心은 君火를 주하며 또한 心火는 能히 아래로 命門火를 資生한다. 膀胱津液은 二火를 얻어서 蒸動하므로 寒氣는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蒸化를 받아 陽氣를 出하니 內로는 能히 臟腑를 溫煦하게 하고 外로는 能히 體表皮毛를 溫養케 한다. 開에 대하여 楊<sup>21)</sup>은 “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 主禁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脾藏足太陰脈, 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라 하여 體外에서 體內로 邪氣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飲食物이나 津液 등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開와 樞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石<sup>22)</sup>은 “少陽·少陰으로 말미암아 太陽·太陰이 되므로 經에 ‘太陽爲開, 太陰爲開’라 하였다. 대개 太陽膀胱이 樞를 얻어서 水道를 通調하고, 太陽小腸은 樞를 얻어서 食物을 變化시킨다. 通調·變化하는 故로 開라 한다. 太陰脾土는 樞를 얻어서 精이 위로 올라가 散布되고 太陰肺金은 樞를 얻어서 精이 아래로 내려가 散布된다. 能히 升하고 能히 降한 까닭에 開라 한다”고 하여 太陽·太陰開가 樞機에 의존함을 설명하였다.

## 2) 闔의 生理作用

陽明은 裏를 주하므로 陽氣를 收納하여 각 臟腑로 지원하는 것이니 兩陽合明을 뜻으로, 陽이 盛하여 陰으로 歸하는 의미

이기 때문에 氣旺生血하는 것이다. 또한 水穀의 收納과 穀汁이 歸陰하므로 糟粕도 下降하는 것이니 內而不散의 의미를 지녔으므로 闔이 된다.

厥陰은 陰盡陽生을 의미하는 것이니 陰은 退함이 進인 것이므로 이곳에서 충만하게 저장된 血이 氣로 변하므로 厥陰은 언제나 저장의 充만을 要한다. 足厥陰肝은 주로 下焦의 陰氣를 저장하여 血脈으로 하여금 잠복되어 精을 泄치 않게 하고, 手厥陰心包는 上焦의 陰氣를 藏하여 陰血을 收斂下降케 하므로 火炎의 上炎을 방지하기 때문에 厥陰이 闔이 된다고 한 것이다<sup>23)</sup>.

한편 闔과 樞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石<sup>24)</sup>은 “少陽·少陰으로 말미암아 陽明·厥陰이 되므로 經에 ‘陽明爲闔, 厥陰爲闔’이라 하였다. 陽明胃腑는 樞를 얻어서 陽氣를 含納하고, 陽明大腸은 樞를 얻어서 陽氣를 收藏한다. 含納·收藏하는 故로 闔이라 한다. 厥陰心包絡은 樞를 얻으면 陰血이 생하고 厥陰肝木은 樞를 얻으면 陰血이 藏하게 된다. 生하고 藏하는 故로 闔이라고 한다”고 하여 陽明·厥陰闔이 樞機에 의존함을 설명하였다.

## 3) 樞의 生理作用

三陰三陽은 궁극적으로 보면 樞機이다. 樞는 門戶의 지도리와 같으며, 陰陽開闔의 轉機이다. 石은 樞機에 대하여 “陰의 初生은 少陰이 되고 少陰은 稚陰이다. 手少陰은 心에 속하고 足少陰은 腎에 속한다. 心은 人身君主之官이니 神明이 出하는 바가 된다. 腎은 陰陽互根之地가 되니, 精氣의 本原이 된다. 故로 少陰은 轉陽至陰의 機

22) 石壽棠：醫原，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p.22.

23) 李正來：太韓醫學全集(一)，서울，第一文化社，1989，p.317，pp.320-321.

24) 石壽棠：醫原，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p.22.

21)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86，pp.44-45.

가 되므로 陰의 樞가 된다. 少陰으로 말미암아 太陰이 되고, 太陰으로 말미암아 厥陰이 되므로 太陰과 厥陰의 開闔은 모두 少陰의 樞가 운행한 결과이다.

厥陰은 陰의 極이니 陰이 極한 즉 陽이 生하고 陰이 轉하여 陽에 入하니, 陽의 初生은 少陽이 되고 少陽은 稚陽이다. 手少陽은 三焦에 속하며 足少陽은 膽에 속한다. 三焦는 眞陽의 火를 갖추고 있으니 그 體는 虛潤하고 그 氣는 氤氳하다. 膽은 初春의 木이 되니 그 體는 軟嫩하고, 그 氣는 濇和하다. 故로 少陽은 轉陰 至陽의 樞機가 되어 陽의 樞가 된다. 少陽으로 말미암아 太陽이 되고, 太陽으로 말미암아 陽明이 되므로 太陽과 陽明의 開闔은 모두 少陽의 樞가 운행한 결과이다.

陽明은 陽의 極이니 陽이 極한 즉 陰이 生하고 陽은 또 轉하여 陰에 入한다. 그러므로 少陰·少陽이 陰陽出入之開闔의 樞機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樞가 하나라도 不利함이 있으면 出入之機가 停할 것이며, 出入之機가 停한 즉 開闔의 機가 廢하게 된다”<sup>25)</sup>고 하였다.

#### 4. 開闔樞에 대한 異見

##### 1) 厥陰爲樞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三陰經의 開闔樞 문제에 대해 異意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方<sup>26)</sup>은 “厥陰爲樞, 少陰爲闔”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內經》의 開闔樞에 대한 이론은 주로 經脈循行의 部位와 經路 및 經氣의 傳變·連繫 등의 각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手足三陰三陽經의 走行方向으로 분석해 보면 厥陰은 대체적으로 太陰과 少陰의 中間에 있으므로 ‘厥陰爲樞’가 되며, 三陰經氣의 多少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太陰은 三陰, 少陰은 二

陰, 厥陰은 一陰이라 불리우며, 厥陰은 陰이 끝나고 陽이 생기는 단계이므로 ‘厥陰爲樞’가 된다고 하였다.

梁<sup>27)</sup>은 “厥陰爲陰盡陽生段階, 有交通陰陽終始의 樞氣作用, 故厥陰主闔, 當做樞”라고 하여 方과 같이 ‘厥陰爲樞’라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經絡의 循行路線을 보면 厥陰은 太陰과 少陰 兩經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는 經絡의 氣血多少로 분석하여 보면 厥陰은 陰盡陽生의 轉樞가 된다.

셋째는 表裏關係로 보면 厥陰과 少陽은 서로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다.

넷째는 六經傳變의 次序로 보면 少陽은 능히 裏로 傳하고 表로 出하며, 厥陰은 능히 陰으로 들어가고 陽으로 나오므로 樞紐가 된다.

다섯째는 病理現象으로 보면 少陽의 寒熱往來와 厥陰의 上熱下寒은 機轉은 相似하다.

때문에 다수의 醫家들이 ‘厥陰爲樞’가 비교적 합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金<sup>28)</sup>도 또한 “厥陰曰陰之樞, 厥者盡, 故曰厥陰. 足厥陰多血, 故藏血, 手厥陰心包少氣, 故熱多而生津液”이라 하여 厥陰이 闔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朴<sup>29)</sup>은 “氣血을 가지고 開闔樞를 논하였으므로 厥陰이 闔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된다. 만약에 氣血을 말하지 않고, 精氣를 가지고 말한다면 당연히 少陰이 闔이 되고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方, 梁등이 제시한 이론과는 그 견해

26) 王琦의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p.41-42.

27)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一中社, 1986, p.136.

28) 金弘起·姜鎮春 : 內經運氣學正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6.

29) 裴秉哲역 :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p.104.

25) 上揭書, pp.21-22.

를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厥陰爲樞’가 되어야 한다고 한 이론은 經絡의 분포와 《傷寒論》이 傳變順序를 가지고 주로 논하고 있는데, 朴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反證하고 있다.

첫째, 三陰交를 지나서 보면 분명히 方의 말처럼 厥陰이 太陰과 少陰의 사이를 순행하고 있다. 그러나 三陰이 交하기 전에는 少陰經은 足心으로 흐르고 太陰經은 足大趾의 내측 곧 開의 위치를 흐르며, 厥陰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足大趾의 외측 곧 闔의 위치로 흐르고 있다. 少陰이 足心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腎의 先天의 本임과 동시에 바로 衛氣가 臟과 經絡으로 출입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즉 腎에서 足少陰으로 衛氣가 出하여야 厥陰의 血도 전신으로 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傷寒論》에서 厥陰을 樞라 한 것은 傷寒이 비록 經絡의 病이라고 하지만, 실상 三陰病이 되면 經絡보다는 臟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陽에서는 經絡을 중시하여 太陽·陽明·少陽의 經絡순서를 택하였지만, 三陰病에서는 太陰·少陰·厥陰의 五臟精氣의 開闔樞의 순서를 택하였다 라고 하여 經絡循行次序와 傷寒傳變順序로 ‘厥陰爲闔’이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 2) 少陰爲闔

梁<sup>30)</sup>은 “闔은 主裏, 向內하며, 受納, 收斂, 內藏의 의미이다. 陽明胃는 ‘倉廩之官’, ‘水穀之海’라고 한다. 受納을 司하고 陽明이 중앙에 居하여 萬물의 所歸가 되므로 ‘陽明爲闔’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少陰心腎은 精을 藏하고 神을 舍하며, 收斂封藏이 마땅하고 宣泄은 不當하므로 ‘少陰爲樞’는 마땅히 ‘少陰爲闔’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金<sup>31)</sup>은 少陰이 十月(亥月)을 주하

는 것에 主眼點을 두어 “陰之闔. 亥月冬之初, 冬者藏, 故少陰曰陰之闔”이라 하여 梁과 같이 少陰이 闔이 된다고 하였다.

## 5. 開闔樞의 病機

《靈樞·經脈》<sup>32)</sup>에 五臟經은 각각 五臟의 氣를, 膀胱經은 筋을, 小腸經은 液을, 胃經은 血을, 大腸經은 津을, 膽經은 骨을, 三焦經은 氣를, 心包經은 脈을 각각 주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李<sup>33)</sup>는 三陰三陽經이 開闔樞를 통하여 이들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代謝活動이 發顯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開闔樞의 機能失調는 生理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靈樞·根結》<sup>34)</sup>에 “折闔敗樞, 開闔而走, 陰陽大失, 不可復取”라고 하였는데 이는 根結의 本末 및 臟腑의 陰陽과 淺沈의 要를 알지 못해서 위태로운 상태가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 1) 三陽經의 開闔樞失調

開는 主表, 向外하여 疏散·升發하는 기능이 있으며, 衛氣와 開闔을 主하며, 外邪를 防禦하는 作用이 있다. 開의 기능이 失調되면 衛外가 무력해져서 外邪가 쉽게 침입하게 되고, 皮肉이 弛緩되고 약해지므로 활동이 쇠약하여져서 靜寒의 현상이 나타나며, 津液不足으로 小腸火가 熾盛하여져서 病的 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 외에 汗孔의 開闔不利와 膀胱氣化의 기능문란 등은 모두 太陽開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靈樞·根結》<sup>35)</sup>에 “開折則肉

31) 金弘起·姜鎭春 : 內經運氣學正解, 서울, 大星文化社, p.26.

32)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21-254.

33) 李鏞泰 : 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代謝發顯, 東醫生理學會 하계학술세미나, 1990, pp.47-52.

34)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19.

30) 梁運通 : 黃帝內經類析, 一中社, 1986, p.136.

節瀆而暴病起矣”라 하였다.

闔은 主裏, 向內하여 受納, 收斂, 內藏하는 기능이 있으며, 陽明胃는 “倉廩之官”, “水穀之海”가 되어 음식물의 受納을 담당하며, 또한 陽明이 中央에 位置하므로 만물이 歸하는 바가 되므로 闔이 된다. 闔의 機能失調는 인체의 체액의 분포, 저장에 영향을 미쳐서 胃의 濕滯와 大腸·皮膚의 건조가 나타나게 된다. 《靈樞·根結》<sup>36)</sup>에 “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疾起矣, 故痿疾者取之陽明, 視有餘不足, 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라 하였는데 이는 闔의 기능실조로 眞氣가 稽留되고 不行하여 침입한 邪氣가 물러가지 않아서 痿疾이 발생함을 설명한 것이다.

樞는 中間에 居하므로 出入之機를 주하는 기능이 있으며, 半表半裏를 주하므로 廣義의 의미에서 볼 때 樞는 인체의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少陽은 表裏之間을 주하여 氣가 筋骨에 行하므로 少陽과 筋骨의 관계는 밀접하다. 따라서 《靈樞·根結》<sup>37)</sup>에 樞折則骨繇而不安于地“라고 하여 筋은 束骨을 주하므로 少陽의 機能失調는 筋弛骨繇 및 安隱立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李<sup>38)</sup>는 少陽樞의 기능실조로 骨繇하고 筋緩하여 動靜에 節度を 잃게 되면 骨의 안정이 病的 動搖인 風으로, 氣의 활동이 病的 火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2)三陰經의 開闔樞失調

三陽經이 水穀을 흡수에 관계하는 것이 라면 三陰經은 이미 흡수하여 氣血이 된 것을 어떻게 저장하고 소모하느냐 하는 것에 관계한다.

太陰이 脾와 肺를 주하고, 脾는 津液을 運行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陰分의 表에 居하므로 開가 된다. 《靈樞·根結》<sup>39)</sup>에

“故開折則倉廩無所輸膈洞……故開折者氣不足而生病也”라고 하였는데 太陰開의 失調는 脾의 運化機能에 영향을 미쳐 穀氣를 轉輸할 수 없게 하므로 위로는 氣의 순환이 膈塞되고, 아래로 洞泄不止하게 한다. 그러므로 氣不足으로 인한 水液阻滯는 燥濕의 病的 狀態를 유발시킨다.

厥陰은 肝과 心包를 주하고 肝은 陰血의 函藏을 주하므로 陰分의 裏에 居하고 闔이 된다. 陰血의 不藏 혹은 神魂不守는 厥陰闔의 失司에 의한다. 膈中은 臣使之官으로 喜樂出焉하므로 厥陰이 손상받으면 그 영향이 膈中에 미치기 쉬우므로 쉽게 悲感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厥陰의 闔이 太過하면 臟滿하면서 神狂하고, 不及하면 氣絶하면서 喜悲가 나타나게 된다<sup>40)</sup>. 그래서 《靈樞·根結》<sup>41)</sup>에 “闔折即氣弛而喜悲”라고 하였다.

少陰은 陰分의 中에 居하여 三陰의 樞가 된다. 手少陰心은 血脈을 주하고 足少陰腎은 生命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靈樞·根結》<sup>42)</sup>에 “樞折則脈有所結而不通”이라 하여 少陰樞의 機能이 失調되면 脈에 結滯가 생겨 不通함으로써 水火交濟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신과 육체활동이 순조롭지 못한 病的 寒熱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6. 開闔樞의 傷寒論에서의 運用  
《傷寒論》의 六經에 대하여 經絡으로

- 36) 上揭書, pp.122-124.
- 37) 上揭書, pp.122-124.
- 38) 李鏞泰 : 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代謝發顯, 東醫生理學會 하계학술세미나, 1990, p.49.
- 39)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25-127.
- 40) 東國大學校 生理學教室 : 經絡生理學, p.25.
- 41)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25-127.
- 42) 上揭書, pp.125-127.

35)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21-124.

해석하는 醫家와, 運氣로 解釋하는 醫家가 있었는데, 柯琴은 《傷寒論翼·六經正義》43)에서 “傷寒不過六經中一症, 叔和不知仲景之六經, 是經界之經, 而非經絡之經”이라 하여 六經은 地面經界이며, 經絡은 六經의 道路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仲景이 《素問》에서 撰用하였으므로 《素問》의 六經을 널리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素問·皮部論》에서 말한 “皮有分部, 脈有經紀. 其生病各異, 別其部分, 左右上下, 陰陽所在, 諸經始終.”이 仲景의 “創立六經部位之原”44)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六經을 列國에 비유하여 “腰以上爲三陽地面, 三陽主外而本乎裏……腰以下爲三陰地面, 三陰主裏而不及外”45)라고 하여 經絡의 經은 ‘六經道路, 非六經地面’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한편 六經을 침범한 邪에 대하여 그는 客邪와 正邪로 구별하였는데, 客邪는 三陽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正邪는 三陰이며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만일 六經의 地形에 밝으면 질병의 樞機를 알 수가 있고, 六經의 오는 길을 알면 治病의 규칙을 다룰 수가 있다고 하였다46).

이상을 종합해 보면 柯琴은 六經을 經絡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신의 여섯개 부분으로 인식하고, 관련이 있는 臟腑·肌表·經絡·組織·竅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으며, 經絡은 六經의 經脈通路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柯琴은 傷寒論의 病證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開闔樞이론을 도입하였다. 즉 《傷寒論翼·六經正義》47)에 “陰陽離合論, 太陰爲開, 故仲景以之主表, 而以脈浮, 惡寒, 頭項強痛爲提綱,……陽明爲闔, 故以之主裏, 而以胃實爲提綱,……少陽爲樞, 少陰亦爲樞, 故皆主半表半裏症. 少陽爲陽樞, 歸重在半裏, 故以口苦, 目眩爲提綱,……少陰

爲陰樞, 其欲寐不寐, 欲吐不吐, 亦半表半裏, 雖有舌乾, 口燥等症, 而不入提綱, 歸重在半裏也,……太陰爲開, 又爲陰中之至陰, 故主裏寒自利. 厥陰爲闔, 又爲陰中之陽, 故主裏熱而氣逆. 少陰爲陰中之樞, 故所主或寒或熱之不同, 或表或裏之無定, 與少陽相似也.”라고 하여 病症의 위치에 따라 表·裏·半表半裏로 나누어 病症을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病症解釋은 이후 陳修園에게 영향을 미쳐서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此數語, 審證施治之大關鍵”48)이라 하여 開闔樞를 통해 傷寒病을 辨證施治해야 한다고 하였다.

#### 7. 開闔樞의 臨床의 活用

開闔樞는 앞에서 서술한 生理·經脈·傷寒에서 뿐만 아니라 證候의 歸納 및 治療, 轉歸의 分析, 豫後判定 등 臨床活用に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開闔樞를 통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1) 證候를 귀납하고 病機를 해석한다.

邪氣가 三陽에 있으면 病이 表에 편중되어 熱證·實證에 속하는 것이 많고, 邪氣가 三陰에 있으면 病이 裏에 편중되어 寒證·虛證에 속하는 것이 많다. 三陽으로 말하면 太陽은 六經의 門戶로써 外邪가 침입하면 太陽이 가장 먼저 邪氣와 맞부딪치고, 陽明은 裏를 주하므로 邪熱이 裏에 침입하면 熱邪가 熾盛하거나 혹은 ‘胃家實’의 證狀이 나타나며, 少陽은 半表半裏에 있으므로 寒熱往來하는 증상이 나타

44) 上揭書, p.162.

45) 上揭書, p.163.

46) 裘沛然주편 :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241.

47) 柯琴편찬 :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62-163.

48) 陳修園 : 南雅堂醫書全集, 傷寒論淺註, p.14.

43) 柯琴편찬 :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62.



난다. 三陰도 각기 다른 기능적 특징에 근거하여 相異한 병리변화와 증후를 반영하게 된다. 이는 正邪의 消長과 질병발전의 機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2) 病勢에 따라 치료를 진행한다.

太陽은 開를 주하므로 邪氣가 太陽에 있으면 正氣가 盛하고 邪氣가 淺表하게 되므로 發汗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素問·陰陽應象大論》<sup>49)</sup>에서 말한 “因其輕而揚之”, “其在皮者, 汗而發之”의 의미이다. 陽明은 闔을 주하므로 病邪가 陽明에 침입하면 마땅히 邪氣를 攻下함으로써 正氣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中滿者, 瀉之于內”<sup>50)</sup>의 의미이다. 少陽은 樞를 주하므로 病이 少陽에 傳入했을 때 이를 發汗시키면 邪氣가 裏로 陷入하여 壞證으로 변하고, 瀉下시키면 正氣가 손상을 받으므로 이때는 오직 和解法만이 陰陽과 表裏를 調理하여 樞機가 잘 돌아가게 된다. 이는 모두 病情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法으로 임상활용에 도움이 주며, 그 근원을 찾아보면 모두 經脈의 開闔樞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3) 正邪對立의 形勢를 파악하여 질병의 轉歸와 豫後를 판단한다.

《傷寒論》중의 六經傳變·合病·并病·欲愈候 등의 내용은 본질상으로 볼 때 臟腑經絡의 陰陽表裏 관계와 기능적 특징 등을 토대로 하고 임상실제를 결합하여 立論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病邪가 陽經에서 陰經으로 들어가면 病勢이 重하고 예후가 나쁘며, 病邪가 陰經에서 陽經으로 나오면 病勢이 輕하고 예후가 좋다<sup>51)</sup>.

### III. 結 論

이상으로 開闔樞의 概念, 作用, 異見, 病機, 傷寒論에서의 運用 및 臨床의 活用に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陰陽의 離合은 인체의 생리, 병리, 변증논치를 설명하는데 널리 응용된다. 아울러 陰陽의 離合은 三陰三陽의 開闔樞로서 설명되어지며 이들은 相互依存·相互制約에 의하여 臟腑와 經絡의 생리활동이 표현된다.

2. 開闔樞의 개념은 門을 이루는 세부분 즉 門栓, 門板, 門軸을 말하며, 氣가 소통하는 通路로서 氣의 다소에 따라 動靜과 作用이 다르게 나타나며, 表·裏·表裏之間의 위치 및 生·盛·衰에 따라 나누어진다.

3. 開는 主表, 向外하며 疏散·升發하는 작용이 있으며, 衛氣를 주하므로 外邪를 방어 한다. 闔은 主裏, 向內하며 受納, 收斂, 內藏하는 작용이 있다. 樞는 半表半裏에居하여 樞機出入의 樞紐作用을 한다.

4.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經絡의 循行路線, 氣血多少, 表裏關係, 六經傳變의 次序 및 병리현상의 측면에서 볼 때 厥陰은 樞가 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少陰은 闔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5. 開闔樞의 機能失調는 생리활동에 지장을 초래 하게 된다. 太陽開가 折하면 肉節瀆하여 暴病이 발생하고, 陽明闔이 折하면 氣無所止息하여 痿疾이 일어나며, 少陽樞가 折하면 骨齣하여 서 있는 것이 불안하게 된다. 또한 太陰開가 折하면 위로는 膈氣痞塞하고 아래로는 洞泄不止하며, 厥陰闔이 折하면 氣弛하고 喜悲하게 되며, 少陰樞가 折하면 脈氣가 結體되어 不通하

49) 王琦의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28.

50) 上揭書, p.28.

51) 上揭書, p.42.

게 된다.

6. 開闔樞를 傷寒論에 運用한 학자로는 柯琴과, 陳修園 등이 있으며, 柯琴은 六經을 經絡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신의 여섯개 부분으로 인식하여 臟腑, 肌表, 組織, 竅를 상호연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開闔樞를 통해서 傷寒病을 辨證施治하였다.

7. 開闔樞는 임상적으로 證候를 귀납하고 病機를 해석하며, 正邪對立의 形勢에 따라 轉歸, 治療 및 豫後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 參 考 文 獻

1. 東國大學校 生理學敎室 : 經絡生理學.
2. 王琦의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3. 張介賓편 :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4. 高士宗 : 黃帝內經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5. 安徽中醫學院·上海中醫學院편 : 鍼灸學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6.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7. 陳鼎三 : 醫學探源, 上海, 中醫學院出版社, 1987.
8. 圖書集成 醫部全錄, 서울, 成輔社, 1976.
9. 宋点植찬 : 醫學輯要, 大田, 文耕出版社, 1991.
10. 朴贊國 :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 定期學術發表會 論文集, 1995.
11. 吳崑主 : 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12. 程士德주편 :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張介賓편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4. 包順義편 : 素問評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15. 梁運通주편 :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16. 郝印卿 : 論傷寒六經是臟腑, 經絡, 氣化的有機結合, 中醫雜誌, 1982.
17. 石壽棠 : 醫原,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18.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第一文化社, 1989.
19. 金弘起·姜鎭春 : 內經運氣學正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20. 裴秉哲역 :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21. 河北醫學院교석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2. 李鏞泰 : 經脈의 開闔樞를 통한 代謝 發顯, 東醫生理學會 하계학술세미나, 1990.
23. 柯琴편찬 :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4. 裘沛然주편 :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5. 陳修園 : 南雅堂醫書全集, 傷寒論淺註.